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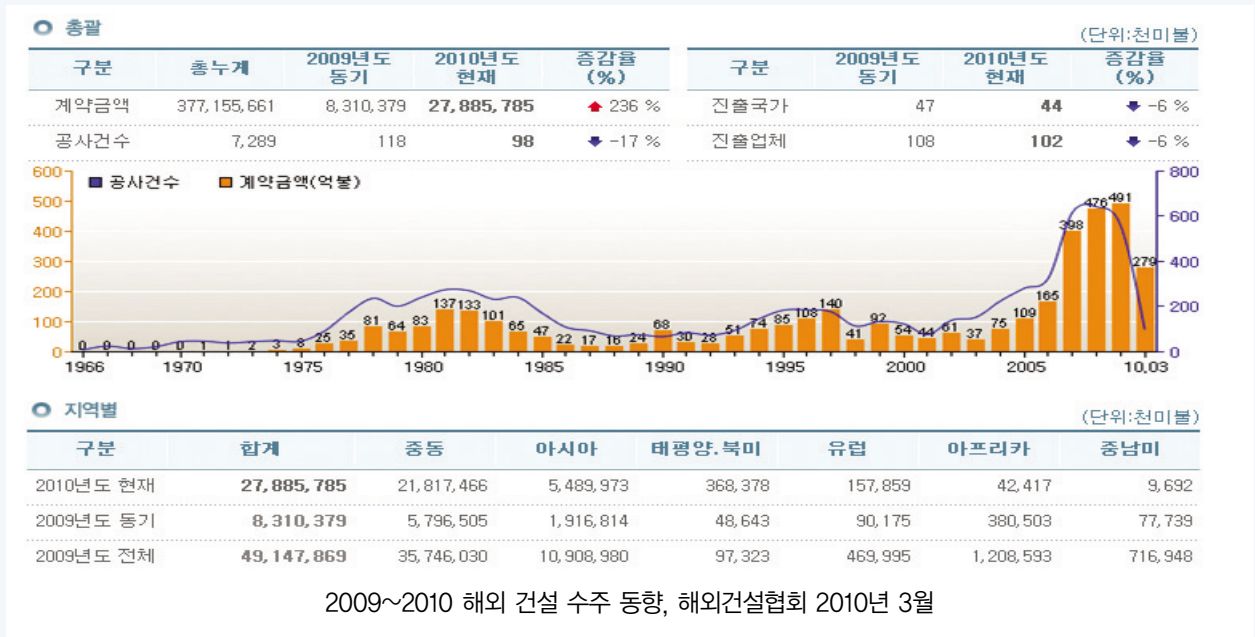
적절한 사업 포트폴리오 고민할 때

김현회 / 원칸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현재 우리 설비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건설 경기 위축으로 신규 건설 물량도 많지 않고 저가 수주 경쟁으로 공사 계약을 해도 손익 맞추기가 더 걱정이다. 게다가 자재값 마저 자주 들썩거리니 옆친 데 댈친 격이다. 어딘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본문에 계속)

2010년 3월~4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내내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 심했고, 앞으로도 우상향하며 추세 이어질 가능성 높음. - 광산 파업 등 연초부터 원자재 관련 악재들이 겹쳐 시장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내 철강업체가 가격 인상을 계획중임.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들의 강력한 단가 인상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 전년대비 11%선 상승으로 인상폭이 커, 시장내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대리점들의 사전 정보 공유로 인하여 구매사들의 심리적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임.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관 가격은 계속하여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3월초 6%정도의 인하가 이루어진 동관시장은 다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4월에 가격인상이 예상되며 인상폭은 8% 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들어서며 국제 원자재 시장의 니켈 가격이 TON당 2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가격 상승 요인 발생. - 하지만 스테인레스 스틸 생산이 전년 대비 1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공급 초과 시장이 조성되면 STS관의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견됨.
PVC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I의 기습적인 단가인상 통보로 다소 혼란이 있음. - 3, 4월 중 두리화학 등 메이저 회사를 중심으로 타 제조사들의 소폭 단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음.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이긴 하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재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경기 회복시 가격 급등의 우려도 있으니 선 구매 등 중장기적인 자재 수급 계획 수립 필요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실적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건설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그나마 다행이다. 국내외 시장에 모두 진출해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국내 불황기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 한 시름 놓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설비건설업체는 국내 시장에 편중된 면이 없지 않다. 해외에 진출한다 해도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과 같이 국내 시장이 어려울 때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고려해 볼 적기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에 역외자인 필자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

작금의 설비건설업계의 어려움은 크게 △시장이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경제 위기 등 외부 요인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것. △분리발주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해외 진출이 그 한 가지 실마리라고 본다.

해외로 진출하면 국내 경기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 전체가 어렵지는 않다. 또 분리발주가 되는 곳이라면 눈치 볼 시어머니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플랜트의 밸브 교체 작업 등 대형 개보수 공사는 수주액도 크고 설비건설사가 주도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일이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또다시 현재의 고통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캐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 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에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